

행복을 배우는 선교여행: 주님의 전 생은 섬김과 베품이다!

우리 생활 속의 하느님의 현존은 이기심이 아닌 일종의 베품의 사랑을 발전시킨다
God's presence in our lives fosters a kind of love that is giving, not self-seeking.
Uwepo wa Mungu katika maisha yetu hukuza aina ya upendo ambao ni kutoa, si kujitafutia.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바로 섬김과 베품으로 관철된 일평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길만이 우리를 가장 훌륭하고 철저히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그 실천은 그리 쉽지가 않다. 우리들의 자애와 이기심이 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삶이기에 이를 이겨내는 것을 덕이라 칭하고, 특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행하고, 칭찬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을 음덕이라고도 부른다.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덕행이다. 동시에 이런 덕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의 한 방법이 바로 외방선교 이다. 사도 바오로는 기원 35년경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로마에서 기원 59년 침수의 치명을 하실 때까지 약 24년간을 외방선교에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의 실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선교의 여행에 자신과 동반자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제공하면서, 그는 온갖 고통과 고초를 몸소 체험하였다.

현재 우리의 선교사들도 모든 고초와 고통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들의 도움을 제공하고 그 불편과 필요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교행위이다. 그렇다. 이런 선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맞볼 기회를 찾아보자!

외방선교가 우리들의 일방적인 베품만은 아니고 우리도 그들에게서 얻는 것이 아주 많은 서로 간의 Win-Win 쌍방 행복의 길이다. 나의 체험에서 나누어 주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다. 참으로 행복한 선교와 동시에 순례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이기도 하다.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가장 훌륭한 기쁨과 행복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위에 인용한 사도행전, 사마광(宋 司馬光)의 가훈, 히브리서의 성경 구절을 통해 타인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가 인생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 회심 축일 <Hans Speckaert 1570-1577, 루브르 박물관>

<이런 주님의 삶을 배우는 수련의 순례여행>

인간최대의 행복은 베푸는 데서 온다! 외방선교의 즐거움은 베푸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 얻음의 성스러운 여행이다.

사도행전 20:34-37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司馬溫公家訓 (宋 司馬光 송 사마광 1019-1086)

積金以遺子孫, 子孫未必守; 재산은 모아 후손에게 물려준다 해도, 자손들이 이를 보존할 지 모르겠고, 積書以遺子孫, 子孫未必讀. 서적들을 모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자손들이 이를 읽을 지도 모를 일! 不如積陰德於冥冥之間,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덕을 쌓아, 爲子孫長久之計. 자손들을 위한 오래가는 계획으로 삼을 것이다. 此先賢之格言, 乃候人之龜鑑. 이 선현들의 격언이 우리 후대인들에게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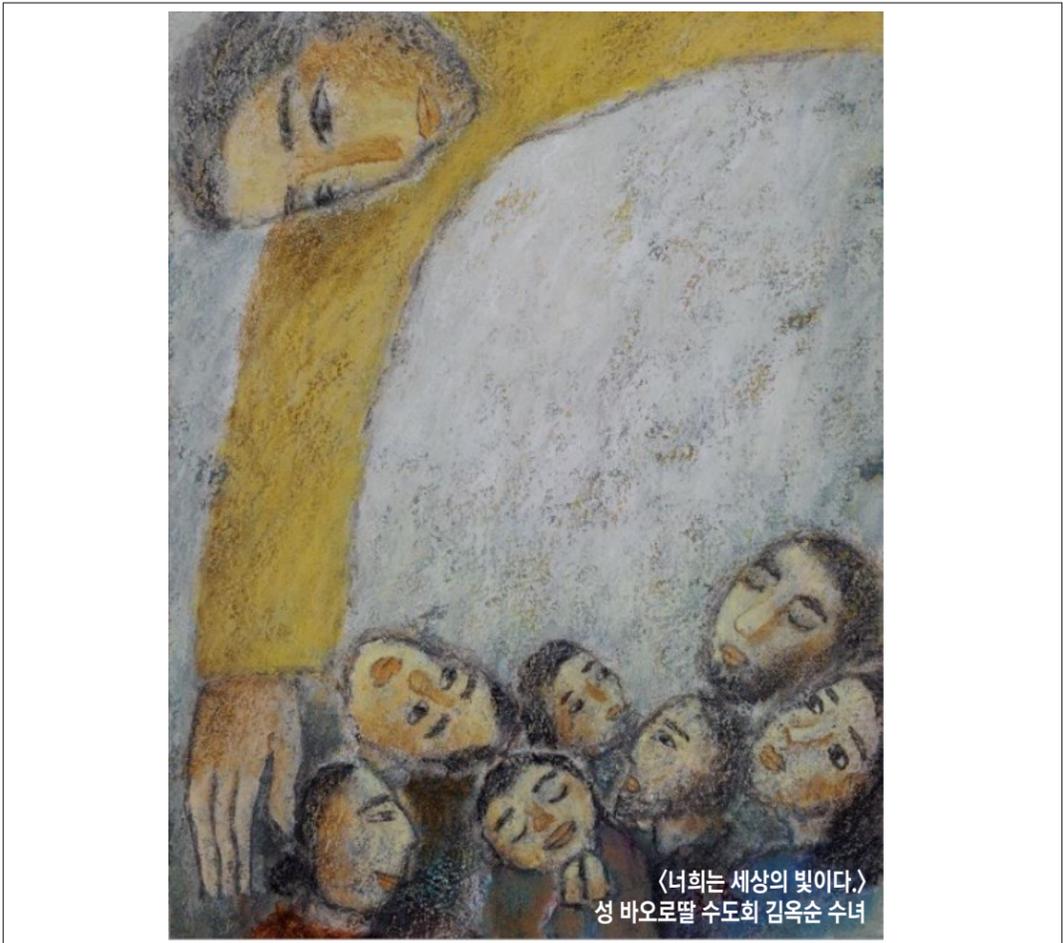
히브 13:1-2: 5-6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돈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연중 제 5 주일
2023년 02월 0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의회장 채희백 바오로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58,7-10
- # 화답송 시편 112(111),4-5,6-7,8-9(◎ 4-7)
◎ 울퉁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1-5
- #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복음 마태오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 성가 입당 24 봉헌 215 성체 156 파견 4

성당 소식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썸머셋 구역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예두(요셉), 장치숙(아가다) - 이 이레네
- 최정인 - 안을봉(요셉) 가족
- 김지영(유진) - 김 스텔라
- 박병희 - 김 스텔라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정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 곽 율리아나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 강 세실리아, 공 티모테오, 공 루시아 - 가족
- 추민수(요한) 가족 - 먼로 구역
- 이윤석(리차드) 가족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채우진(사무엘) 가정 - 가족
- 오은주(로사) 가정 - 김동근(사도요한)
- 한지혜(크리스티나) - 최정원(레지나)
- 김소민(카타리나) - 이정옥(지파) 가족, 채희백(바오로) 가족
- 김경근(이나시오)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38명).....	\$1,280	
• 교무금.....	\$1,820	
김영숙(1-2)	이궁주(2)	한상철(1)
전광수(1-2)	최영찬(1-2)	육순재(1-6)
서정근(1-2)	백영숙(1-4)	이종권(1-3)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박화성(헬레나)	곽 율리안나

🌸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 2월 5일: The Catholic Spirit (교구내 가톨릭 신문사 지원)
- 2월 12일: 유틸리티

🌸 2023년 2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메타전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지 가지 수거

• 오는 2월 22일(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성지가지는 2월 19일(주일) 까지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 하여 제대초 기름을 봉헌해 주신 신부님, 유용희(율리아나), 이정배(마크리나), 나제이(퀸틸라)님께 감사 드립니다.

🌸 제 13차 성령 안에 성장세미나 참가 안내

- 일시: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3시 - 2월 19일(주일) 오후 5시 (2박 3일)
- 장소: 뉴튼 분도 수도원
- 신청 마감 및 참가비: 2월 5일(주일), 340불
- 신청 문의: 사무실 또는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201-947-4717)

🌸 올드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반석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8일 (토)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 정 마이클 형제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 이스트브런스릭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먼로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노스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말씀번역

🌸 제 1독서 이사야서58,7-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네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흠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1-5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상식

주님 봉헌 축일에 왜 초를 축복하나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 후 40 일째 되는 2월 2일,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고 요셉 성인과 함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루카 2,22-23)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세기 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축일은 촛불 행렬과 함께 6세기 동방교회에 전파됩니다. 처음에는 시메온 예언자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에 초점을 두어 ‘만남의 축제’로 지냈습니다.

이 전통은 7세기 이후 서방교회에 전해져 ‘만남의 축제일’ 또는 ‘성모 취결례’라는 이름으로 기념되었고 중세 후반부터는 촛불을 들고 행렬하는 예식에 맞추어 ‘성축절(聖燭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970년 이후 교회는 이 축일의 본 의미를 되살리고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제일에 촛불 행렬을 위해 초를 축복하던 전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정착되어, 매년 ‘주님 봉헌 축일’에 각 본당과 가정에서 일 년동안 사용할 초를 미사 중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례나 기도 중에 촛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촛불을 켜는 것이 이교도들 가운데 널리 행하여지던 관습이라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장례 때 또는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서 촛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촛불을 켜는 관습은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초는 무엇보다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역시 당신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14 참조). 이처럼 촛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전례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는 밀초인데, 이 밀초는 죄 없으신 순결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벌들은 꿀을 보관하고 알과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 벌집을 짓는데, 이때 벌들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물질을 밀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밀초를 만드는 벌들의 순결함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셋째, 초가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내듯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전례와 기도 안에서 초를 봉헌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사랑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결심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전례나 기도 안에서 초를 켤 때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1-2)